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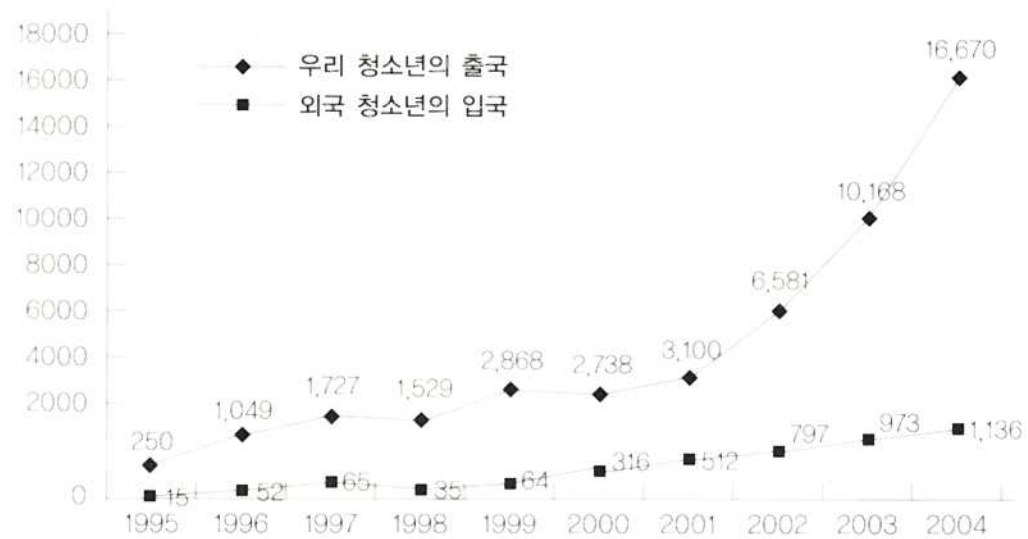
제7부

청소년활동

청소년위원회는 덕·체·지를 고루 갖춘 전인격체로서의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청소년수가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청소년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 1 장 청소년 수련활동

1.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청소년위원회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덕·재·지를 고루 갖춘 전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1세기 청소년상」에 따라 특성화된 수련거리를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및 학교 등에서 응용·실시할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을 통하여 보급하고, 개발·보급된 수련거리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별 시범운영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전국의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련거리 기본모형을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각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수련거리 기본형은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며, 각 종별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조자료를 별도의 책자 및 비디오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거리 기본형은 1992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총 93종이 개발되었다.

또한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의 목표, 청소년의 요구변화 등 세반요소를 감안하기 위해 2002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제2차 특성화 청소년수련거리개발 기초연구'



를 통해 제시한 6대 영역별 수련거리 소재를 2003년에는 6종, 2004년에는 5종을 개발·보급하였고, 2005년에도 5종을 개발 중에 있다.

〈표 7-1-1〉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93종) 구분

21세기 청소년상	활동영역	활동소개
문화적 감성	문화감성 활동	문화권탐방활동, 예술감상활동, 명절식기활동, 국토탐사활동, 민속놀이활동, 노래광장활동, 놀이한마당활동, 전통문화사랑방활동(우리 노래, 춤, 악기, 극, 풍속활동), 신토불이상차림활동, 역사연극활동, 역사인물기행활동, 역사읽기운동, 박물관기행활동, 선현답사활동, 전통예술장조활동, 취미생활활동, 문예사랑활동, 영상매체이해활동, 만화이해활동, 어울마당활동, 가족과함께하는놀이24가지활동, 전설의고향활동, 하나되는몸짓활동, 전통축제한마당, 영상음악, 어울춤, 철학기행(31종)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과학정보 활동	도서교실활동, 환경캠프활동, 장영실의하루활동, 자기표현활동, 컴퓨터와의 만남활동, 지구촌시대를여는 정보통신활동, 정보캠프활동, 창작마당활동, 과학놀이활동(9종)
봉사와 협력정신	사회봉사 활동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모의지방의회활동, 지역사회명사만남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장애청소년스포츠활동, 화목한가정꾸미기활동, 이웃돕기한마당활동, 지역사회공개토론회활동, 환경살리기운동, 우리는환경을지키는 녹색파수꾼활동, 함께하는지역공동체활동, 가족유대강화활동, 한마음한가족(13종)

(표 계속)

모험과 개척정신	모험개척 활동	바들산체험활동, 안전사고대비훈련활동, 호연훈련활동, 자연농장활동, 수상훈련활동, 신바람풍물체조활동, 몸바심활동, 대한군인활동, 백두에서한라까지활동, 비만예방활동, 한국의강탐사활동, 국토사랑배낭여행활동, 모험체험활동, 산들탐사활동, 미지의세계활동(15종)
전문적 직업능력	자기개발 활동	부모와함께하는역할놀이활동, 모의법정활동, 정신건강활동, 가치관정립활동, 바른시민생활활동, 동방예의지국활동, 진로탐색활동, 집단속의나활동, 물자절약운동활동, 생활법률이해활동, 암행어사출두여행활동, 공양미삼백석활동, 믿음의유산활동, 남이되어보기캠프활동(14종)
국제감각	국제교류 활동	국산품애용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국제교류준비활동, 세계문화비교체험활동, 나라사랑체험활동, 외국문화이해활동, 통일광장활동, 온누리로향한배달의일활동(8종)
기 타	다 영 역 활동	수련거리운영지침, 출발우리는새내기, 우리들세상여기는청소년마을(3종)
		총 계 (93종)

자료 : 청소년위원회직제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신규개발된 수련거리는 1종당 500여부씩 책자로 제작되어 전국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수련거리를 다양하게 응용·실시할 수 있는 곳에 우선 배포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사업

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어울마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학업과 근무에서 오는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어울려 우정을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서 매월 1회씩 토요일에 개최되는 청소년어울마당은 시·군·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놀이마당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이동 어울마당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어울마당이 활성화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1994년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자료집-신명나는 우리 한마당」을, 1997년에는 「청소년어울마당 활동」 프로그램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단체·시설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청소년어울마당은 2004년에 총 1,202회 개최하여 649,148명이 참가하다.

나. 청소년수련거리 시범운영사업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심신의 수련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1세기 청소년상」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청소년수련거리를 1992년부터 개발해 오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129종의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였다. 다음해에는 전년도에 개발한 기본형 수련거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2003년도에 개발·보급한 6종의 청소년수련거리 중 시·도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1종을 선정·실시하여 1,95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다.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청소년위원회는 임시분제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해 수련활동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도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직접 청소년을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을 199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2004년에는 5개 단체(충주시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마을, 정정청소년복지익산지회, 문화마을들소리, 한국우주정보소년단)에서 총 73회를 실시, 8,328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여가선용 확대 및 단체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위원회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 해소,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지원사업」을 1992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2004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1회에 걸쳐 6,896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제 2 장 청소년 교류활동

1. 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가.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및 현황

정부에서는 외국 정부와의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청소년 교류사업, 해외인수 사업, 국제 청소년 행사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04년도까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교류약정을 체결한 현황 및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표 7-2-1>과 같다.

<표 7-2-1> 국가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2004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1987	40명 15일간	513명	606명	1,119명
중 국 (중화전국 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 양해각서('98)	1993	20명씩 10일간 (98년부터 연2회)	372명	398명	770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 계획서('95)	1994	30명씩 기간 미명시	65명	69명	134명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1979	15명 10일간	379명	390명	769명

(표 계속)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1996	24명 10일간	83명	90명	173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 약정서('99)	1999	20명 10일간	160명	118명	278명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1981	10명 10일간	205명	205명	410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 약정서('94)	1996	15명 2주간 (격년제)	25명	45명	70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약각서('96)	1996	3명, 7명 격년 6일간	41명	49명	90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92)	1993	15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칠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 약정서('96)	1998	20명 10일간	1명	17명	18명
몽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1)	2000 사전합의	10명 10일간	54명	53명	107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 약정서('00)	2001	10~20명 10일간	37명	40명	77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 약정서('02)	2002	10~20명 10일간	20명	27명	47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2)	2003	10~20명 10일간	-	-	-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3)	2004	10명 10일간	-	-	-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 협력약정서('04)	2005	미정	-	-	-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04)	2005	10~20명 10일간	-	-	-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 약정서('05)	2006	10~20명 10일간	-	-	-
19개국				1,980명	2,164명	4,144명

자료 : 청소년위원회

2005년도에 이루어진 국가간 청소년 교류현황은 <표 7-2-2>와 같다.

<표 7-2-2> 국가간 청소년 교류(2005년)

(단위 : 명)

사업명	시기(기간)	장소	인원	비고
한국·일본 정부간 교류	파견 11. 3~11.17 (15)	일본	30	
	초청 9. 1~9. 15 (15)	한국	30	
한국·중국 정부간 교류	파견 3. 29~4. 7 (10)	중국	40	
	초청 9. 21~9. 30 (10)	한국	40	
한국·몽골 정부간 교류	파견 4. 18~4. 27 (10)	몽골	10	
	초청 6. 21~6. 30 (10)	한국	10	
한국·베트남 정부간 교류	파견 9. 20~9. 29 (10)	베트남	20	
	초청 3. 18~3. 27 (10)	한국	30	
한국·말레이시아 정부간 교류	(1차) 파견 5. 16~5. 25 (10)	말레이시아	15	
	초청 7. 14~7. 23 (10)	한국	15	
	(2차) 파견 11. 20~11. 29 (10)	말레이시아	15	지도자
	초청 8. 11~8. 20 (10)	한국	15	지도자
한국·사우디 정부간 교류	파견 7. 13~7. 22 (10)	사우디	10	
	초청 7. 1~7. 10 (10)	한국	10	
한국·멕시코 정부간 교류	파견 7. 21~7.30 (10)	멕시코	10	
	초청 6. 4~6. 13 (10)	한국	10	
한국·이스라엘 정부간 교류	파견 6. 21~6. 30 (10)	이스라엘	10	
	초청 11. 1~11.10 (10)	한국	10	
한국·러시아 정부간 교류	파견 5. 27~6. 3 (08)	러시아	10	지도자
	초청 9. 1~9. 8 (08)	한국	10	지도자
한국·모로코 정부간 교류	파견 5. 17~5. 26 (10)	모로코	10	
	초청 8. 17~8. 26 (10)	한국	10	
한국·체코 정부간 교류	파견 8. 22~8. 31 (10)	체코	10	
	초청 10.21~10.23 (10)	한국	10	
한국·폴란드 정부간 교류	파견 7. 18~7. 27 (10)	폴란드	10	
	초청 6. 13~6. 22 (10)	한국	10	
한국·핀란드 정부간 교류	파견 11. 7~11.13 (07)	핀란드	3	지도자
	초청 8. 17~8. 25 (09)	한국	4	
한국·칠레 정부간 교류	파견 9. 23~10. 2 (10)	칠레	10	
	초청 11. 5~11.14 (10)	한국	10	

자료 : 청소년위원회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2004년까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표 7-2-3>과 같다.

<표 7-2-3> 국가별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단위: 명)

국가별	연도별	연도별																계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말레이시아	초청	147	14	14	14	15	15	10	16	-	15	14	15	16	15	15	15	379
	파견	158	14	14	14	15	13	15	13	-	15	15	15	15	15	14	15	390
시우디	초청	97	-	-	10	-	10	9	10	10	10	10	10	9	10	10	205	
	파견	97	-	-	10	-	10	11	10	10	10	10	10	10	7	7	205	
일본	초청	80	20	20	20	20	30	40	39	38	39	38	40	29	30	30	513	
	파견	120	30	28	29	30	30	40	40	40	39	40	40	40	30	30	606	
중국	초청				20	20	20	20	20	20	20	19	19	19	19	20	372	
	파견			21	20	20	20	18	20	21	20	19	20	20	20	20	398	
헝가리	초청				10							5	5	-	5	-	57	
	파견				10	15		12				5	5	5	5	-	65	
러시아	초청				7	18							10	10	10	10	69	
	파견				6	20	3						10	10	10	10	83	
몽골	초청							17	17			10	20	19	-	-	83	
	파견							24	16			10	20	20	-	-	90	
모로코	초청							10			7	5	-	3	-	-	25	
	파견							17			10		10	-	8	-	45	
핀란드	초청							5	4	5	6	3	7	3	8	-	41	
	파견							5	5	7	5	7	3	7	3	7	49	
칠레	초청								1								1	
	파견							2		5			10	-	-	-	17	
베트남	초청										20	20	30	30	30	30	160	
	파견									19	20	20	19	20	20	20	118	
몽골	초청										14	10	10	10	10	10	54	
	파견										15	10	10	9	10	10	63	
멕시코	초청											10	10	9	8		37	
	파견											10	10	10	10		40	

(표 계속)

이스라엘	연도별	연도별																계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이스라엘	초청																6	7	8	20
	파견																7	10	10	27
계	초청	324	34	34	74	62	93	111	107	93	136	153	199	194	191	175	1,980			
	파견	375	44	63	83	86	93	146	105	102	128	171	193	218	176	182	2,164			
인은 교류 국가수	합계	699	78	97	157	148	186	257	212	195	264	324	392	412	367	357	4,144			
			2	3	5	5	5	10	7	5	7	10	13	13	12	11				

자료: 청소년위원회

1979년부터 시작된 정부간 청소년교류, ASEAN 10개국과의 교류, 일본과의 우정의 계획 교류 현황은 <표 7-2-4>와 같다.

<표 7-2-4>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단위: 명)

국가별	연도별	연도별																계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부간 교류	초청	324	34	34	74	62	93	111	107	93	136	153	199	194	191	175	1,980	
	파견	375	44	63	83	86	93	146	105	102	128	171	193	218	176	182	2,164	
	합계	699	78	97	157	148	186	257	212	195	264	324	392	412	367	357	4,144	
ASEAN 10개국	초청					60				108		120	120				408	
	파견									24		44					68	
우정계획	초청	외교부사업																
일본파견	초청	400	100	100	96	100	98	100	97	99	100	91	97	-	-	-	1,478	
	파견	400	100	100	96	100	98	100	97	99	100	91	97	-	-	-	1,478	
합계	초청	324	34	34	74	122	93	111	107	201	136	273	319	194	191	175	2,388	
	파견	775	144	163	179	186	191	246	202	201	252	262	334	218	176	182	3,710	
합계	합계	1,099	178	197	253	308	284	357	309	402	388	535	653	412	367	357	6,098	

자료: 청소년위원회

2005년 실시된 청소년 국제행사와 해외 파견활동 현황은 각각 <표7-2-5>와 <표7-2-6>과 같다.

<표 7-2-5>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2005년) (단위: 명)

사업명	시기(기간)	장소	인원	비고
2005 APEC Youth Plaza	8.17-8.25(9)	서울, 강원	35개국 270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세계청소년공연축제	7.28-8.2(6)	남이섬	20개국 2만명	(재)노래의섬
제9회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8.8-8.14(7)	무주	20개국 1만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6회여수국제청소년 축제	8.12-8.14(3)	여수	10개국 5만명	전라남도(여수)
제14회국제청소년해양 축제	7.26-8.4(10)	서울, 경남	8개국 360명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40차국제청년야영	8.11-8.22(12)	이천	30개국 130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동북아청소년포럼	8.19-8.24(6)	서울	3개국 70명	MRA한국본부

자료: 청소년위원회

<표 7-2-6> 청소년 해외파견활동 지원(2005년) (단위: 명)

사업명	시기(기간)	장소	인원	비고
청소년적십자해외봉사활동	8. 12~8. 15 (4)	캄보디아	35	대한적십자사
청소년국제야영활동파견	10. 22~10. 30 (9)	필리핀	23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농촌청소년글로벌 문화체험	8. 11~8. 16 (6)	일본	20	한국4-H본부
청소년공동체훈련캠프	11. 9~'06. 2월	동남아	20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광복군유적지순례	1. 7월 (각12)	중국	136	장준하기념사업회
한·중미래숲조성사업	4. 4~4. 10 (7)	중국	83	한·중미래숲센터
한·중청소년친선문화제	7. 31~8. 7 (8)	중국	55	흥사단

자료: 청소년위원회

나. 국가간 청소년 정기교류

2005년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인도, 수단 등 19개국과 청소년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가간 교류사업이 아시아 권역 중심의 10일 내외 단기방문 프로그램임을 감안,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합법적인 취업으로 체재경비를 조달하며 방문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취업관광(최장 1년)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을 호주(1995년), 캐나다(1996년), 일본(1999년), 뉴질랜드(1999년) 등 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내에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양국 정부간 상호교류

① 한·말레이시아 청소년지도자 교류

1965년 한·말레이시아 문화교류협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류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주관으로 2002년도부터 15명씩 10일간씩 2회에 걸쳐 사업을 확대하여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79명, 파견 390명으로 총 769명이다.

② 한·사우디 청소년 교류

1981년 한·사우디 정부합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매년 1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파견하는 교류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소년복지처가 주관하며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중동아랍권 문화

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05명, 파견 205명으로 총 410명이다.

③ 한·일본 청소년 교류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일본의 내각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4년까지의 교류인원은 초청 513명, 파견 606명으로 총 1,119명이다.

④ 한·중국 청소년 교류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정식 수교 후, 양국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양국간의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체결(1998. 11월)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시행 중이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72명, 파견 398명으로 총 770명이다.

⑤ 한·헝가리 청소년 교류

정부간 교류확대 원칙에 따라 1992년 4월 서울에서, 한·헝가리 청소년 협력의정서를 체결, 매년 10명 내외를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으며 동구권 국가와의 상호이해와 협력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헝가리측의 사정으로 교류가 부진하여, 2000년부터 교류가 실시되어 2003년까지 초청 25명, 파견 57명으로 총 82명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다시 교류가 중단되고 있다.

⑥ 한·모로코 청소년 교류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소년 교류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1994년 3월 모로코에서 양국간 청소년 교류 약정서를 체결, 양국은 1996년부터 청소년대표단을 매년 10명 내외 10일간 격년제로 교류하고 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5명, 파견 45명으로 총 70명이다.

⑦ 한·필리핀 청소년 교류

1995년 4월 한·필리핀 양국간에 정부간 청소년 교류 협력계획서를 체결,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필리핀의 교육문화체육부 주관으로 1996년부터 매년 10~20명씩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다. 1998, 1999년도에는 필리핀측의 경제사정으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교류가 재개되어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83명, 파견 90명으로 총 173명이었으나 2003년부터 다시 중단되었다.

⑧ 한·핀란드 청소년지도자 교류

북유럽국가에서의 청소년 교류 기반의 구축을 위해 1996년 4월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핀란드 교육부간에 양국간 청소년 협력협약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년에 처음으로 양국의 청소년지도자 5명씩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1999년 5월 청소년 협력협약각서를 갱신하여 2000년도부터 청소년전문가(3명) 또는 청소년예술가(7명)를 격년제로 상호 교차 교류하기로 하였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1명, 파견 49명으로 총 90명이다.

⑨ 한·칠레 청소년 교류

1996년 12월 한·칠레 양국간 청소년 협력약정서를 체결, 우리나라 청소년

년위원회와 칠레의 청소년처 주관으로 1997년부터 매년 20명의 청소년을 10일간의 일정으로 양국을 상호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지도자 5명이 칠레를 방문한 것 이외에, 1998년도부터 칠레측 방한은 칠레측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01년에는 우리측 청소년 10명을 파견한 바 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명, 파견 17명으로 총 18명이며, 2005년에는 다시 교류가 재개될 전망이다.

⑩ 한·베트남 청소년 교류

1998년 12월 1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1999년 7월 30일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베트남 국가청소년위원회간에 정부간 청소년 교류 약정이 체결되었고, 1999년도부터 매년 20명씩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베트남 청소년의 초청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60명, 파견 118명으로 총 278명이다.

⑪ 한·몽골 청소년 교류

2000년 2월 몽골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한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과 2000년도 양국간 청소년 교류를 합의하였다. 2000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 청소년 대표단 15명을 몽골에 파견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몽골청소년 대표단 14명을 한국에 초청함으로써 한·몽골 정부간 최초의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2월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54명, 파견 53명으로 총 107명이다.

⑫ 한·멕시코 청소년 교류

2000년 11월 9일 서울에서 양국의 외무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과 주한 멕시코대사간에 청소년 교류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2001년에 최초로 양국간 청소년 교류가 실시되었고,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7명, 파견 40명으로 총 77명이다.

⑬ 한·러시아 청소년 교류

러시아와는 1994년 양국 정상간에 청소년 교류 실시를 합의하였으며, 1995년에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1994년 1995년에 교류가 실시된 후 러시아의 경제사정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개되었다.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65명, 파견 69명으로 총 134명이다.

⑭ 한·이스라엘 청소년 교류

정부의 국가간 청소년교류 대상국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2002년 4월 24일 양국 정부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교류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매년 10명씩 양국 청소년들을 교환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청소년지도자 5명이 방한하였고 우리 청소년지도자 7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0명, 파견 27명으로 총 47명이다.

⑮ 한·프랑스 청소년 교류

한국과 프랑스는 2002년 4월 26일 양국 정부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교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도부터 양국 청소년들을 교환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프랑스측의 사정으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⑩ 21세기 우정의 계획 일본 파견

한국 문화관광부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주관으로 매년 청소년지도자, 교원, 근로청소년, 대학생 각 25명씩 100명을 1개월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양 강좌와 교류회, 산업시설, 문화유적지 견학, 민박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 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전문 확대를 도모하였다. 1987년부터 5년 단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부터 제3차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1,478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파견한 바 있다.

⑪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

2002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스포츠·청소년교류 방안으로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를 제의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 양국 청소년 각 500명씩 상호 방문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관광부와 일본의 외무성이 주최하고 한국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일본은 (재)일·한문화교류기금이 주관하여 실시한 이 사업은 2003년도에는 총 교류인원 1,290명(한국 509명/일본 781명)을 초청·파견하였다. 2004년도에는 400명의 인원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교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100명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체육회에서 특정분야(문화예술, 체육) 청소년을 초청,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500명 전원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초청 주관하게 된다.

⑫ 중국청소년 500명 초청사업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시 양국 정상간의 청소년 교류 확대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2004년부터 3년간 매년 500명씩 중국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 사업은 중국청년지도자에게 한국의 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증진과 한국과의 인적연계를 강화하여 한·중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04년 7월과 11월에 10일간의 일정으로 500명이 방한 하였고 2005년에는 7월 200명, 9월 100명, 11월 200명이 방한하게 된다.

(2) 한·아세안(ASEAN) 청소년 교류

1994년도에 한·아세안 합동야영대회를 처음 실시한 이 사업은 아세안과 우호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례적인 청소년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아세안 청소년교류조직위원회(사무국:서울 YMCA)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후원하에 '새천년을 위한 아시아의 평화만들기'란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새천년 아시아 청소년캠프」에서는 아세안 청소년 및 지도자 120명, 한국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하여 '그룹별 문화활동', '문화공연-아시아의 평화만들기', '문화학습여행 및 스포츠활동', '문화교류의 밤'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2002년 8월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44명이 아세안 6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을 방문하였고, 2003년부터는 초청 120명, 파견 50명 규모로 매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동 사업은 2002년부터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청소년단체간 상호교류

① 한·일본 청협간 청소년 교류

1979년 한·일 청협간 청소년 교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일본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10명~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② 한·일본 단체간 청소년 교류

1994년 한·일 민간청소년 교류협회간 청소년 교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와 일본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주관으로 매년 10명~20명씩 7일간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다. 단체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지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하여 매년 국제규모의 청소년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사회상 등을 외국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함은 물론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청소년,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무직·비진학청소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외국청소년 국내초청 교류

① 제9회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

한국 걸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여 2005년 8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무주 덕유대 야영장에서 20개국 10,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Green, Giving, Global」이란 주제 하에 글로벌존(영어마을 등), 모험활동(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웰빙활동(요가, 스포츠 마사지, 수지집, 금융교실 등), 기빙활동(나눔축제, 자원봉사,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 등을 실시하였다.

② 2005 APEC Youth Plaza

2005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이 후원한 APEC Youth Plaza가 청년위원회 주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05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35개국 27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파크텔 및 강원도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사이버 세상 속의 APEC 청소년”이란 행사주제로 사이버 세상 속의 청소년의 역할과 윤리, e-world에 대한 청소년의 도전과 비전 등에 대해 토론 기회를 가졌고, 국가별 전통문화공연 등의 문화교류 행사와 한국문화 체험활동, 다양한 친교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모의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IT 격차 해소, 다양한 문화공유에 대한 회원국 간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청소년선언문’으로 채택하여 11월 정상회담에 청소년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되었다.

③ 세계청소년공연축제

YoPeFe 2005(International Young People's Muse Festival 2005)라

이름 붙여진 이 축제는 (재)노래의섬 주최, 세계청소년공연축제실행위원회 주관, 청소년위원회의 후원으로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20개국 2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남이섬에서 열렸다. UNIDREAM을 주제로 음악, 춤, 연주 등에 재능을 가진 세계 각국의 청소년(13세-18세)들이 창작 공연을 실시하여 경선을 치렀으며, 조형물 제작 및 영상 제작 등의 예술콘텐츠 체험, 자유무대 공연, 수상놀이, 민속공연, 디스코텍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2005년 첫 행사를 계기로 동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청소년축제로 자리 잡아 남이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④ 제6회 여수 국제 청소년 축제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등 4개 청소년단체 주관, 청소년위원회 및 전라남도 등의 후원으로 200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0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여수 전남체육공원에서 행사를 가졌다. 음악, 댄스, 사물놀이 등의 전국 단위 지역예선과 게임짱 온라인 예선, 길거리 농구 현장 예선 등을 통과한 162개팀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본선 경연을 펼쳤으며, 이 밖에도 해양, 국제, 참여, 체험, 전시, 시티투어 등의 8개 분야에 25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⑤ 제14회 국제 청소년 해양 축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하는 동 행사는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서울·경남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일본, 홍콩, 영국 등 8개국 36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각종 해양훈련과 친교행사, 유적지 답사 및 산업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⑥ 제40차 국제 청년 야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동 행사는 2005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이천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청소년 30개국 130명이 참가하여 변화와 청년의 참여라는 주제로 강의, 전체 워크숍, 그룹토의 및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였다.

⑦ 2005 동북아 청소년 포럼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동 행사는 2005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개국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북아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고 민박, 문화공연 관람, 체육활동의 친교행사를 실시하였다.

(2) 한국청소년 해외파견 교류

① 대한적십자 해외봉사활동

동포 위문 및 친선교류 활동을 통한 동포에 실천 및 봉사정신 구현과, 자매 적십자사간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및 국제친선도모를 위하여 대학RCY 회원 32명 및 지도자 3명을 2005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캄보디아에 파견하였다. 파견기간 중 고아원 봉사, 모금활동, 응급처치법 강습, 한인촌 위문활동으로 학생들과의 국제친선 교류활동을 실시하였다.

② 한·중국 동포 청소년 문화제

한·중국 동포간 청소년 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을 고취하고 상호유대관계를 증진하며, 민족통일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7

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 한국청소년 및 지도자 55명과 동포 청소년 30명, 중국청소년 및 지도자 330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 청소년 공동역사기행, 청소년교류 세미나, 친선의 밤, 체육대회 등이 개최되었다.

③ 농촌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농촌청소년의 국제 감각을 배양시키고, 선진영농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영농정착 의욕을 함양시켜, 유능한 농업후계세대를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4-H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5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농촌 청소년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④ 청소년 국제야영활동파견

아시아, 태평양 지역청소년들과 국제야영을 통한 심신단련과 상호우의를 증진하고 장애대원 및 근로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의 특수대원들에게 국제야영 참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극복을 도모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소개 및 다른 나라 전통문화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1994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23명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국제야영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한·필리핀 청소년 친선교류회 등을 추진하였다.

⑤ 청소년 지역공동체 훈련캠프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선택과 미래의 직업선택 모색을 위한 열린사고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체험적 학습 여행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자 한국 YMCA 전국 연맹에서 2005년 11월 19일에서 2006년 2월까지 청소년 20명을 동남아에 파견하였다.

⑥ 청소년 광복군 유적지 순례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장준하 선생 등 광복군의 구국장정 답사를 통한 청소년의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된 동 행사는 (사)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2005년 1월 15일부터 26일(1차) 7월 6일부터 16일(2차) 2회에 걸쳐 128명을 중국 상해, 서주, 임천, 중경, 서안, 북경 등에 파견, 답사토록 하였으며, 진혼제, 한·중 우호 나무심기, 강연회, 한·중 친선의 밤 등의 행사를 가졌다.

⑦ 한·중미래숲 조성사업

한·중 청소년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나무를 심는 행사로 한·중 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에서 2005년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83명의 청소년 및 지도자를 중국 영하 자치구에 파견하였다.

라. 청소년 국제기구와의 협력

인종을 초월한 인류애의 증진 및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문제의 공동논의와 청소년 단체활동 운영에 대한 자료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등 국제청소년기구 회의에 우리 청소년대표가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주요 청소년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청소년관련 국제정보 수집과 우수프로그램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간의 평화, 우호 및 단결을 촉진하고, 아시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1972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창설된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에 우리나라는 창립 총회 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199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총회(19개국, 80여명 참가)에서 김집 당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이 AYC회장(임기:1995. 6~1998. 6)에 피선됨으로써 국제청소년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AYC회장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1996년 이후 AYC사무국(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예산과 운영요원 1명을 지원하였으며 1997년 7월 서울에서 AYC집행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런던에서 창설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에 한국 청소년지도자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기구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WAY 및 AYC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매년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2. 남북한 청소년 교류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북청소년 교류는 이러한 남북간 통일논의 및 교류·협력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며 민간청소년단체가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정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토분단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금강산수련활동', '백두산체험활동', 휴전선일대의 '통일기원 청소년 나라사랑 대행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청소년의 참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교류·협력의 계기를 모색하는 한편, 본격적인 남북청소년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청소년 교류는 남북 화해분위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의 교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남북분단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청소년 교류협력의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청소년기구 가입과 같이 남북청소년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남북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남북청소년 공동행사에 청소년 및 지도자의 공동참가,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남북청소년 만남의 광장, 국토순례대행진, 공동문화·학술행사 등의 남북청소년교류사업 활성화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단계로서 남북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족단결을 도모하고 변영된 통일조국 건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다른 어떤 분야의 교류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있기는 하나,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함은 물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취업관광 프로그램 운영(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취업관광프로그램은 일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 : WHP)이라고 하며 만 18세부터 30세의 청소년들이 협정국에 1년간 체재하면서 여행과 레저를 통해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직접 체험하

고 부수적으로 일시취업(아르바이트)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호주(1995. 7), 캐나다(1996. 1), 일본(1999. 4), 뉴질랜드(1999. 5) 등 4개국과 비자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0월 한·일 양국 정상회의시 합의된 한·일청소년 취업관광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이 199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동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청소년들을 위한 협조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를 한국관광공사내에 처음으로 설치(1999. 2)하였으나,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이관(2001. 2)하여 운영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지원센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해당국 관련 생활정보, 취업정보, 여행과 학업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대·내외 홍보
- ② 프로그램과 관련한 출판물 제작 및 배포
- ③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취득과 관련 정보 제공
- ④ 워킹홀리데이 비자취득자들을 위한 관련정보 및 설명회 실시
- ⑤ 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취득자의 국내 입국 후 자료 제공
- ⑥ 방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상담
- ⑦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동호회 지원
- ⑧ 비자협정국 대사관과 해당국 워킹홀리데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표 7-2-7> WHP 협정 체결국가 및 비자발급 사항

구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협정체결일	1995. 7.	1996. 1.	1999. 4.	1999. 5.
비자발급쿼터	무제한	500명	1,800명	800명
비자발급연령	18~30세	18~30세	18~30세	18~30세
비자발급형태	복수 1년간	복수 1년간	단수 1년간	복수 1년간
비자발급신청	연중	1~2월중	3월, 8월경 (상·하반기 2회)	5월초

주 : 1) 상대국에 일시 취업, 문화와 생활양식 등 체험(최장 1년 체류)
2) WHP지원센터 운영(청험내 설치) : 비자 취득 및 취업정보 제공 등 홍보·안내

<표 7-2-8> 우리청소년의 출국 및 외국청소년의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계	20,730	358	715	152	6,565	2,236	2,000	83	30,010	2,829
1995년	250	15	-	-	-	-	-	-	250	15
1996년	999	52	50	-	-	-	-	-	1,049	52
1997년	1,677	65	50	-	-	-	-	-	1,727	65
1998년	1,479	35	50	-	-	-	-	-	1,529	35
1999년	1,568	19	100	-	1,000	45	200	-	2,868	64
2000년	1,438	25	100	-	1,000	287	200	4	2,738	316
2001년	1,600	25	100	33	1,000	434	400	20	3,100	512
2002년	4,305	67	100	41	1,776	665	400	24	6,581	797
2003년	7,414	55	165	78	1,789	805	800	35	10,168	973
2004년	13,623	27	448	166	1,799	916	800	27	16,670	1,136

주 : 1) 입국인원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따른 실제입국 인원
2) 출국인원은 주한 관련 외국공관을 통해 확인한 비자발급 인원

제 3 장 청소년 과학활동 및 농어촌청소년 활동

1. 과학기술문화사업

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과학 이해도 제고

(1) 청소년과학경제신문 및 과학만화잡지의 발행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발행하는 청소년과학경제신문은 쉽고 유익한 과학 및 경제 관련 기사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2년 10월에 창간되었다. 월 1회 타블로이드 형태로 발행되며 총 24개 지면 중 14개 면을 과학지면으로, 나머지 면은 경제지면으로 발행한다. 또한 쉽고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과학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과학만화잡지를 격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2만여 일선 초중고에 무료로 배포하여 학습보조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2004년도에는 월 2회 발행하는 과학 만화잡지인 “어린이 과학동아”를 창간하여 10월부터 발간하였으며 초등학교등에 배포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 과학문화 포털사이트 사이언스올 운영

199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과학문화종합정보망 사이언스올([http://](http://www.scienceall.com)

www.scienceall.com)은 인터넷상의 과학문화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회원수가 약 200여만 명에 이르며 각종 순위사이트에 자연과학분야 1위를 점유하고 있어 국내 최대의 과학문화 포털사이트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2004년에는 청소년 및 일반인이 꼭 알아야하는 시사과학에 대한 심화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기획/특집’ 코너를 신설하여 매주 인터넷과 주간뉴스레터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야후꾸러기 과학나라를 오픈하여 대상별 차별화된 서비스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콘텐츠의 확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문화봉사단을 운영하여 상시적 질의응답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온라인진로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이공 계진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3) 디지털과학콘텐츠의 개발·제공

디지털과학콘텐츠 개발사업은 과학콘텐츠의 체계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 공공지식자산으로서 과학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국민의 과학 수준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년간의 과학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획력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상별 사용자의 수요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2004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향의 ‘가상과학실험 콘텐츠’와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용 멀티학습리소스품을 구축하였고, 오락적 요소를 포함하는 과학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등 청소년 대상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중점추진 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해외의 우수한 과학문화에 대한 폭넓은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과학문화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4 대한민국과학컨텐츠대상'을 개최하여 우수과학컨텐츠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양질의 과학컨텐츠가 개발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4) 인터넷과학신문 운영

인터넷과학신문은 최근의 과학기술 이슈를 '인터넷 데일리' 기사 형태로 제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과학기술과 사회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3년 5월 19일 '사이언스타임즈' (<http://www.sciencetimes.co.kr>)라는 제호로 창간한 이래 기획, 뉴스,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의 형태로 월 평균 300건이 넘는 기사를 사이트를 통해 보도하였고, 동시에 이메일로 '사이언스 뉴스레터'를 주 5회 발행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과학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창간 2년째에 접어들면서 사이언스타임즈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거두고 있다.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과 공동기획으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시리즈를 진행하였으며, 국민일보와 한국일보 등 언론사와도 공동기획을 마련해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혁신으로 미래 연다', 'Go! 사이언스코리아', '여성과학시대', '대덕 R&D특구', '한국인 노벨상 프로젝트', '황우석 신드롬' 등 과학기술계의 이슈를 발굴하여 기획기사로 게재하고 있으며, 다음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다음), 지식발전소(엠펙스), SK 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등 뉴스 포털 사이트에도 과학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 청소년판 발간 이후 성인 약 15만명, 청소년 약 80만명 등 90만명이 넘는 독자를 확보하였으며, 단기간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

어냄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전문 매체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인터넷과학방송 운영

인터넷과학방송(<http://www.scienceall.tv>) 사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과학을 즐기면서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과학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 4월 개국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청소년권장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되어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도에는 910건의 각종 과학영상물을 뉴스&특집, 과학교육, 테마과학, 과학다큐, 재미있는 과학 등 5개 채널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SCIENCE21' 등 그 동안의 영상매체 활용사업에서 확보된 프로그램 등 총 800여 편을 서비스하였다.

(6) 우수과학도서 선정 및 과학독후감 대회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우수과학도서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과학도서를 발굴하고 발간을 장려하여, 청소년들이 과학도서를 좀 더 손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권장도서로 추천되고, 대한민국과학문화상 후보로 선정되며,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지원, 독후감대회 실시, 선정도서 구매 보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4년에는 아동부 4종, 아동부(번역) 4종, 초등부 4종, 초등부(번역) 4종, 중/고등부 5종, 중/고등부(번역) 5종, 대학/일반부 5종, 대학/일반부(번역) 5종, 만화 4종 등 총 40종의 우수과학도서가 선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받았다. 또한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과학도서를 읽고 제출한 독후감을 심사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우수 과학도서를 더 많이 읽도록 장려하기 위한 과학독후감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전국민과학도서인증제(sbook.scienceall.com)를 인터넷 상에서 상시 운영하여 842명에게 과학도서인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함께 참여하는 과학문화행사

(1) 대한민국과학축전

대한민국과학축전은 1997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적인 사고와 생활에 과학정신을 적용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 최대의 범국민적 과학 축제이다.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과 청소년이공계진로축전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학연의 과학기술 전시, 과학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과학과 예술의 만남, 과학강연 등의 행사들이 한데 어우러진 명실 상부한 과학기술 문화의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평균 15만명 내외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단체(정부출연연구소, 국내외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초중고교의 과학동아리, 과학교사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성공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다.

「2004대한민국과학축전」은 “밝은 미래 사이언스 코리아”라는 주제 아래

2004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Colin Heseltine 호주 대사,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 국내외 여러贵宾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국내외 130개 단체에서 사이언스코리아 주제관, 과학탐구관 I,II, 과학예술놀이터, 사이버사이언스코리아관, 국제과학영상전,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근대기상100주년기념축전, 로봇올림픽아드 등 300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15만 6천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지역과학축전

지역과학축전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참여형 과학축전이다.

2004년 1년 동안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모두 10개 지방도시에서 지역과학축전을 개최하여 총 58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과학전시물을 관람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로봇경진 및 산업기술박람회 등의 지역특별산업과학전, 과학놀이·실습·공작 등의 체험과학축전, 가족과학축전, 사이언스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3)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탐구

동기를 높여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미래의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청소년종합과학탐구대회이다. 2004년도에는 과학그림, 항공과학, 전자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 등 기존 5개 종목외에 창의성에 중점을 둔 종목으로 로봇과학, 과학실험, 공동탐구토론 등 새로이 3개 시범종목을 도입하였다.

2004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9월19일 국립중앙과학관, 대덕중학교,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갑천둔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선발되어 지역 예선을 통과한 747명이 참가하였다. 과학그림, 항공과학, 로봇과학, 전자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 탐구토론 과학실험, 8종목 18개 부문 경연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4) 가족과학축제

가족과학축제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의 과학 행사 전개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범국민과학축제이며, 온 가족이 함께 과학놀이를 즐기므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4 가족과학축제”는 4월 과학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4월 17일, 18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약 6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가족참여형 이벤트, 로봇달리기, 사이언스나이트, 과학영화, 과학연극, 과학만화 그림대회 등 과학을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5) 로봇경연대회

미래의 최첨단 기술인 로봇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 과학도들을 위해 대규모 전시와 로봇축구등 다양한 경연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키고 로봇의 대중화를 촉진한다.

2004년에는 화성에 안착한 탐사 로봇에 착안하여 모형화성에 500여대의 로봇을 전시한 “스페이스 로봇 챌린지 대회”를 올림픽 공원에서 “4월 가족과학의 달” 행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FIRA 로봇월드컵 예선대회(2004년 3~6월) 및 세계대회(2004년 10월)”를 개최하였고 15개국 150여개 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로봇올림픽아드 예선대회(2004년 7월) 및 세계대회(2004년 11월)”를 진행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지능 로봇 분야에 대해 높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 학교 밖 과학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1) 청소년과학탐구반(YSC, Youth Science Club) 지원

2001년 사이버과학연구센터로 시작한 청소년과학탐구반(YSC)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주제, ‘과학’ 테마, ‘탐구’ 활동지원이라는 사업 철학 아래,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과학문화활동을 경험하며 상호간에 지적인 격려와 자극이 되어 장차 훌륭한 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중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방과후 과학활동중심 회원제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과학탐구활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탐

구반에서 신청된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하여 연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01년 42개 과제, 2002년 112개 과제, 2003년 125개 과제에 대해 탐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과학문화도시에 집중 지원하는 등 하반기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1,101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지원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집 '과학탐구사랑'을 발간하여 전국의 학교 과학 탐구반에 배포함으로써 탐구반간 연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제3회 과학탐구발표대회와 제5회 온라인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상을 비롯한 각각 21개팀과 49개팀의 우수과학반을 시상하였다. 이중 과학탐구발표대회에서 「레고로 만드는 로봇세상」으로 우수팀으로 선정된 안산동산고등학교 과학반이 제18회 중국청소년과학기술창신대회(CASTIC)에 참가하여 연구 성과를 전시하였다. 또한,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세계공학자대회(2004 WEC)에 「MBL을 이용한 전동차가 다가오는 소리 분석 및 진행 방향의 예측」이라는 주제로 평촌고등학교 과학반이 참가하여 세계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과학활동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 청소년 이공계 진로 안내 Expo 개최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공계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고 졸업후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 소개, 전망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해 증진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공계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이공계 진로 안내 Expo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에는 7월 23일에서 28일까지 6일간 코엑스에서 「2004 청소년 이공계 진로 안내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공계 대표 20개 학회를 비롯 WISE,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등이 참가하여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자료 전시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공계 진로지도자료집, 성공한 CEO 자료집 등을 배포하여,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이공계에 대한 밝은 미래 비전을 심어주었다. 또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와 스타과학자 과학강연 등 청소년들의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3) 닦고싶고 되고싶은 과학기술인 발굴·홍보

‘닦고싶고 되고싶은 과학기술인’ 선정·홍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인의 선정·홍보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이공계 진출확대를 유도하고, 대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과학기술계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술연구 분야에 국 양(서울대학교), 문대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백명현(서울대학교), 이영숙(포항공대), 이조원(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산업분야는 홍지준(코캠엔지니어링), 백우현(LG전자), 이용경(KT), 사회·문화분야는 진대제(정보통신부), 최재천(서울대학교) 등 총 10명의 ‘닦고싶고 되고싶은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학기술인을 일간지 및 잡지의 인터뷰 기사, 연재기사 게재, 브로셔 제작·배포 등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홍보하였다. 또한 선정된 과학기술인 모두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삶과 보람,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홍보대사 강연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자의 꿈을 심어주었다.

(4)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이공계열 진공 및 직업 전망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기존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대, 한양대학교외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에 추가로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는 중·고등학교 대상의 과학특강, 과학캠프, 이동과학교실, 이공계 진로 멘토링(Mentoring) 사이트 운영, 과학체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5) 과학기술홍보대사(Science Ambassador) 운영

과학기술홍보대사(Science Ambassador)사업은 성공한 이공계 출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출신 모교 등을 찾아가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인 모델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진로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1,042명의 앰배서더 풀(Pool)이 구성되어, 지난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센터 등에서 700여회의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다. 첨단과학기술, 생활과학이야기, 과학기술자의 생활이야기 등을 내용으로 생동감있는 강연이 진행되었고, 과학기자재 및 과학도서를 기증하여 과학학습에 활용케 하였다.

라.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과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도입

(1) 국제 교류·협력 증진

과학문화국제교류협력사업은, 국내 과학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려 국가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수한 해외 과학문화사업을 도입하여 국내 과학문화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과학진흥협회(BA, 2001년 9월 양해각서 체결), 영국왕립연구소(RI, 2002년 4월 양해각서 체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2001년 5월 양해각서 체결), 중국과학기술협회(CAST, 200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 북경과학기술협회(BAST, 2003년 8월 협력의향서 체결), 프랑스파스퇴르연구소(IP, 2005년 1월 양해각서 체결),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과의 공동 사업추진을 통해 해외 과학문화 관련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 확대하고 있다.

1997년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APEC 공식사업으로 채택된 APEC 청소년과학축전은 제1회 행사(1998년, 서울)에 630명, 제2회 행사(2000년, 싱가포르)에 800명, 제3회 행사(2004년, 중국 북경)에 1200명이 참가하였다으며 제3회 행사에는 한국대표단 49명(학생 40명, 교사 9명)을 파견하였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시연과 내용 전개로 대중 친화적인 과학강연의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178년 전통의 영국왕립연구소 크리스마스 과학강연이 2004년 8월 6일부터 7일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시공여행”을 주제로하여 ‘야, 출발이다!’, ‘행성순찰’, ‘충돌경로’, ‘거기 누구 없소?’ 라는 각각 다른 소주제로 영상과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과학과의 교류의 장을 열어주었다.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8일까지 14일간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국제청소년

년 과학캠프를 개최하였다. 한국, 영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미국, 총 7개국 고등학생 및 교사 84명이 과학캠프에 참가하였으며 실험·연구활동 발표, 주제를 토론, 강연, 세미나, 견학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과학축전에는 7개국이 참가하여 국제 과학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 외 북경청소년경진대회(3월, 북경), 중국 우주전시회(5월, 북경), 과학이해증진을 위한 심포지엄(7월, 북경), 중국청소년과학창신대회(8월, 성도), 파리국제과학영상전(10월, 파리), 한영과학기술공동위원회(12월, 런던), 국제지식정보회의(12월, 호주 캔버라) 등 다양한 해외 과학 관련 행사에 참가하여 국제교류 및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지역균형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가. 추진배경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우수 발명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 시·군·구 단위로 지역 발명창작활동의 중심센터로서 각 지역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 볼 수 있는 발명활동 공간의 확보 및 발명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나. 발명교실 설치·운영 실적

발명교실은 특허청이 19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현중학교에 시범설치된 이후 19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가 설치되었고, 1997년에

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19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도별로 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142개소의 발명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다.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학교 발명반은 학생발명활동의 기초산실로서 특허청은 전국의 10,500여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하여 1980년대 후반 이래 발명반 구성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10,382개의 학교에 발명반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발명반은 각종 발명창작활동 및 발명품의 제작 그리고 발명현장 견학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발명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발명반 지도교사 단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에 발명교육 연구회 등 30여개의 발명반 지도교사 단체가 주로 발명교육자료 및 정보의 공유, 지역별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별 발명행사의 개최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라. 향후 계획 및 전망

지역별 발명활동 기반시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지역교육청별로 180개의 발명교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발명교실 확대설치 외에도 발명교실 운영지원비, 교재 제작 및 보급, 운영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강화, 발명교실 지도교사대상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하겠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 발명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1개교 1발명반

활동' 실현을 목표로 발명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년말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학생들을 위한 전문 발명교육기관인 '지식재산교육센터'가 완공되면 관람식 교육을 지양하고 발명실습 체험교육 위주로 맞춤형 발명교육과정이 운영 될 전망이다

마. 발명관련 사업 내역

(1) 발명 장학생 선발 사업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발명 인재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에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다. 제1회 발명장학생은 대학생 180명, 고등학생 176명, 중학생 125명이 선정되어 최고 3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제2회 발명장학생 선발은 실질적으로 발명활동이 우수한 학생중심, 초등학생·지도교사부분 신설, 심사기준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 대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 초등학생 100명 등 총 400명 선발과 장학금을 등급별 차등 지원함으로써 1인당 수여금액이 증액되었다.

(2) 학생 발명행사 개최

①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어린학생시절부터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미래 고도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

중·고·대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특허청 공적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지방전시회에 전시, 발명캠프, 지도교사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고교 재학중 수상학생에게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2004년에는 제주(10월)과 춘천(10월)에서 개최되었고,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에 대해서 7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학생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일본연수를 실시하였다.

②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캐릭터 그리기 대회 개최

유사 창작실기대회들이 통합됨에 따라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온 전국학생 발명상상화 그리기 대회는 2001년부터 「전국 학생 발명 상상화·캐릭터 그리기대회」로 분리개최되고 있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예선을 거쳐 8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시도예선에는 12,366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800여명이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상상화부문에는 286명이 참가하여 55명이 시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부문에서는 534명이 참가하여 194명이 수상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발명캐릭터 부문에 고등부문을 추가하여 최근 학생들의 디자인 및 캐릭터 분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본 대회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표현하고 이를 평가

하기 위한 대회로서, 보통 공모를 통해 우송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품의 주제를 부여하고 직접 그려낸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하는데 특징이 있다.

③ 「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특허청 주최 「전국학생발명창작경진대회」의 실기부문과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 「전국학생발명두뇌올림픽」 및 삼성전자 주최 「삼성 창의력올림피아드」 3개 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회로 통합하여,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2002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첫 대회가 개최되었고, 2004년에는 1월 16일부터 2일間に 걸쳐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세 번째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과학, 수학, 음악, 미술, 공작기능 등 종합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과제(장기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창조성경진대회(DINI)'에 그 원형을 둔 학생 종합창의성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전자운동에 따른 사건전환', '입체만화', '추정구조물'의 3분야에서 초·중·고학생들의 팀들이 지원하여 사진장기과제, 즉시과제 등의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1팀은 세계대회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져 국제적 경쟁을 하게 된다.

④ 전국교원 발명품경진대회 및 발명연구대회 개최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는 학생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

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발명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1999년에 신설되어 2004년 현재 제 6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4년 제6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114 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장려상이상 금상까지 13명의 출품작이 입상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발명반 지도교원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1996년부터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지도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2004년에는 총 8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연구계획서심사(5월)→본논문서면심사(10월)→본논문 발표심사(11월)를 거쳐 35편의 연구논문이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선정된 논문들을 논문집으로 제작 배포하였다.

3. 농촌 청소년 지원활동

가. 4-H활동

4-H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이념 아래 “좋은 것을 더욱 좋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4-H운동은 해방 직후인 1947년 미군정기에 경기도에서 조직된 '농촌청소년구락부'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4-H도입 후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청소년운동이자 농촌부흥운동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

고, 우리나라와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4-H회는 9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민주시민 자질함양과 영농후계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과정의 하나이며 청소년개발 운동이다.

4-H회원들은 조직운영 요령, 과제활동,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영농인의 자질을 연마하고 있다.

나. 4-H 조직운영

4-H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유능한 후계 농업인의 저변을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게 하고, 이들이 장차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청소년의 급격한 감소로 1991년 조직체계를 지역단위에서 직능단위로 전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현재 2,195개의 조직에 66,837명의 정예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 4-H 교육행사 및 교육훈련

4-H 교육행사는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단체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하여 특별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3대 교육행사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4-H 교육훈련은 농업의 근대화에 목표를 둔 우수농장 입주훈련과 4-H

농공훈련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영농 4-H회원에게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유통가공현장 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4-H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알아볼 수 있는 과제교육을 비롯해서 진로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라. 농촌청소년 국제교류

(1) 농촌청소년 국제기술 교환훈련(IFYE)

각국의 4-H회원들이 우방국 농촌 청소년들과의 국제기술 교환훈련(International 4-H Youth Exchange)을 통하여 상호 선진농업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과학영농에 반영할 자료를 습득함은 물론 농촌 청소년간 국제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제기술 교환훈련에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미국, 일본, 태국, 대만 등 7개국과의 교류실적을 갖고 있고, 2004년에는 대만 10명, 태국 4명, 미국 2명을 파견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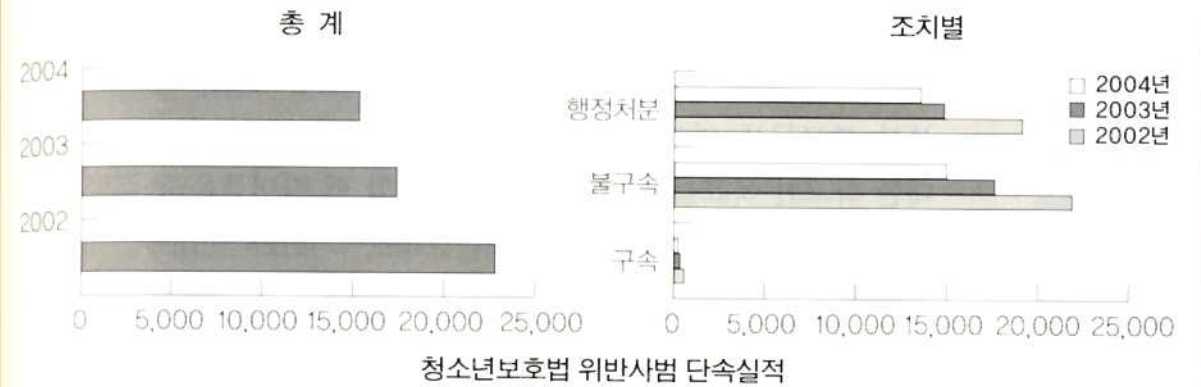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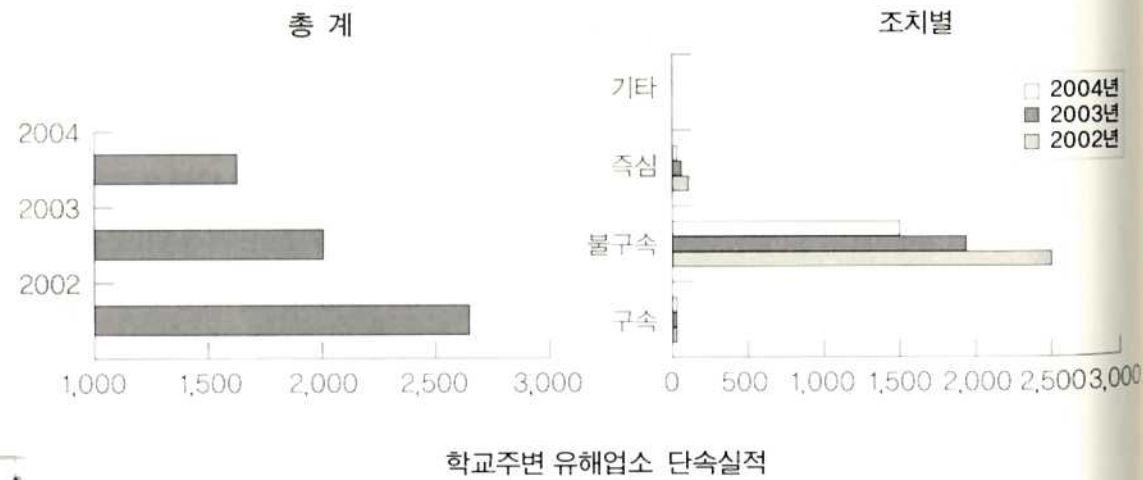
(2) 농촌청소년 국외연수

4-H회원들의 국제적인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국외연수는 핵심4-H회원(영농회원 중심) 19명이 캐나다, 17명이 서유럽(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의 방문 연수를 하였고, 학생4-H회원을 대상으로 19명이 일본에 그린배낭연수를 실시하였다. 국제적 견문확대 및 팀워크훈련, 지도력 배양 훈련, 농업시설 견학 등 알찬 연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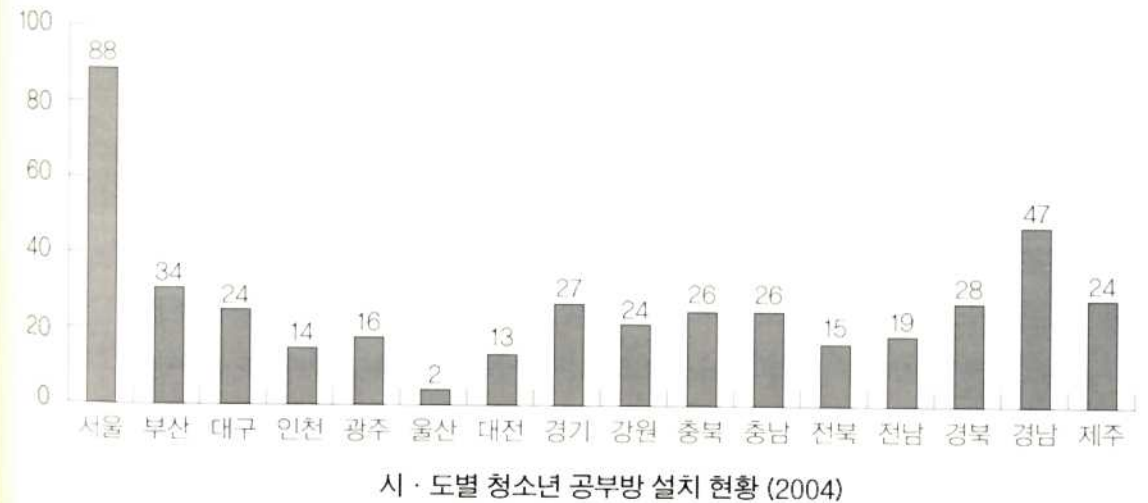
제8부 청소년 보호 · 복지



2004년 한 해 동안 경찰은 교육관계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91,469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564건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1,521명을 불구속, 1,190건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또한 2004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15,962명을 단속하여 150명을 구속하고 13,616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에 427개의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다.



제 1 장 가정교육기능 강화 및 사회환경 개선

1. 부모 교육강화

청소년들의 기본 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건전한 가치관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과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때 보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종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을 볼 때, 이제 부모 교육은 개인적 분쇄해결의 자원을 넘어서 사회의 공동분쇄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급학교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교실운영 등을 통한 부모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가.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부(현 한국청소년상담원)를 통하여 1993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교육계 원로들에 의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섯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교수 및 전국에서 조빙하여 양성된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에 의해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약 37만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나. 부모교육 교수요원의 양성 및 위촉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전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교수급 인사를 조빙하여 2박 3일간의 집중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수요원 위촉장을 수여해왔다. 2000년부터는 보다 많은 교수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양성되어서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수요원 대상을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 상담원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2004년 12월) 전국적으로 약 410여명의 교수요원을 양성 및 위촉하였다.

다. 교수요원을 통한 부모교육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해 양성된 전국의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이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전국에서 4,156어회에 걸쳐 136,811여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2.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각급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숙박업소(일명 러브호텔)·각종 게임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정화구역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규정에 의한 이전·폐쇄대상업소는 정화구역을 현

행과 같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 10. 8)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다. 이후 동 시행령의 제4차(1990. 12), 제6차(1993. 9), 제12차(1998. 1) 및 제14차(1999. 5) 개정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3) 문제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나 건축허가·영업허가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명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되어있어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하치장화·불법 주차장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기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흥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아직도 많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교육관계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91,469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지속

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564건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1,521명을 불구속, 1,190건을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표 8-1-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건)

구분	계	위 반							조 치				행정 처분
		청소년 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목인	윤락행위 남녀혼숙	불량민화 음란비디오 방영	도박 사행행위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기타 (훈방)	
2002	2,614	113	906	276	64	37	31	1,192	18	2,505	15	76	2,079
2003	1,978	53	147	524	105	3	60	1,086	20	1,901	4	53	1,481
2004	1,564	44	356	93	32	4	40	935	4	1,521	12	27	1,190

자료: 경찰청

3. 대중매체의 개선

가. 방송매체

(1) 지상파 방송내용 심의의결 현황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총 심의제재 횟수는 10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도교양 부문이 42건, 연예오락 부문이 59건이고, 제재종류별로 살펴보면 '법정제재' 7건, '(일반)권고' 24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에 대한 경고' 7건, '경고' 29건, '주의' 34건이다.

2003년도 동기간의 제재건수가 324건으로 일평균 27건 정도가 제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올해에는 일평균 8.4건이 제재되어 작년보다 대폭 감소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4년 6월경 '심의규정심비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 논의과정에서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범용적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심의규정에 근거한 '주의', '경고' 조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법정제재 건수가 전년도 4회에 비해 7회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심의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법정제재를 명함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는 '(일반)권고' 조치 빈도가 24회로 전년도 5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8-1-2〉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단위: 건)

제재종류	2004. 1. 1 ~ 2004. 12. 31						누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계		
	TV	R	TV	R	TV	R	
사과		2	1	1	1	3	4
징계			2	1	2	1	3
방송제재조치		2	3	2	3	4	7
(일반)권고	8		15	1	23	1	24
경고 및 관계자	2		4	1	6	1	7
책임자 경고							
경고	9	5	13	2	22	7	29
주의	12	4	9	9	21	13	34
규정제재							
총계	31	9	41	13	72	27	94
소계	31	11	44	15	75	26	101

주: (일반)권고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알려 자정할 경우(1건)으로 계산

제재사유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례는 '협찬고지 기준 위반' 및 '간접광고'로서 각각 28회(전체 사유별 위반 횟수 총계 중 20.1%), 27회(19.4%)로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방송의 선정·폭력 등 부적절한 소재 및 품위유지 관련 위반

지상파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전달된다는 매체의 특성상 방송내용의 품위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또한 선정·폭력적인 내용과 저속한 표현으로 인해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위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및 출연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심의규정 개정으로 인한 행정지도 등 규제방식의 변화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명령을 받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

방송법 제86조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심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규정과 논의과정이 더욱 정교하고, 위반시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화된다 할 지라도 방송사의 자체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송 현장의 제작자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위원회에서 제정한 심의규정, 협찬규칙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시청자에 대한 의무와 같은 방송철학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정교함이 제작의 신중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음반 및 게임물

(1) 청소년관련 법률, 제도 현황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으며(2001. 5. 24), 청소년 접대부 고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 편법으로 행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2004. 1. 29 개정).

청소년 정책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장과 일반 게임장으로 구분, 청소년게임장은 신규진입이 용이하도록 등록업에서 신고업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오락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PC방)은 당초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하여 가급적 영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 예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에 적합한 게임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음반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로 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성인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하여 출입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쾌적한 환경개선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영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보다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있다.

(2) 청소년과 게임문화

먼저,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24세 이하의 자이며, 총 5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기술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76.6%는 "현재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90.8%, 여자의 61.4%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게임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3〉 청소년 성별 게임이용률/청소년 교급별 게임이용률(2005년) (단위: %)

구 분		현재 게임 불이용	현재 게임 이용		합 계
			과거 게임 이용경험 있음	과거 게임 이용경험 없음	
청소년 성별 게임 이용률	남 자	90.8	8.9	0.3	100
	여 자	61.4	25.7	12.9	100
청소년 교급별 게임 이용률	초 등 학 생	72.5	20.0	7.5	100
	중 학 생	74.2	22.7	3.1	100
	고 등 학 생	78.7	16.8	4.5	100
	대 학 생 (전문대학포함)	78.1	12.4	9.5	100

자료: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형태는 게임(31.3%), 정보검색(19.9%), 커뮤니티(블로그)(1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게임(42.3%), 정보검색(17.6%), 음악/영화/만화(13.9%)의 순이고, 여자는 정보검색(22.2%), 커뮤니티(블로그)(21.3%), 게임(19.6%)의 순으로 성별로 이용행태가 구별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정보검색과 커뮤니티(블로그) 이용이 높게 나타났고, 게임의 이용비율이 그 다음으로 비슷한 이용비율을 나타냈다 (「2005 대한민국 게임백서」 조사 중 청소년부분 분석).

〈표 8-1-4〉 청소년 컴퓨터 이용형태(2005년) (단위: %)

구 분	게 임	채 톡	이 메 일	정 보 검 색	음 악/영 화 /만 화	커 뮤 니 티 (블 로그)	기 타	합 계
비 율	31.3	8.6	7.8	19.9	13.8	14.7	3.9	100

자료: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표 8-1-5〉 청소년 성별 컴퓨터 이용형태(2005년) (단위: %)

구 분	게 임	채 톡	이 메 일	정 보 검 색	음 악/영 화 /만 화	커 뮤 니 티 (블 로그)	기 타	합 계
남 자	42.3	9.3	5.5	17.6	13.9	8.5	2.9	100
여 자	19.6	7.7	10.4	22.2	13.6	21.3	5.2	100

자료: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청소년들의 1회 평균게임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미만 정도가 32.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30분-1시간미만 정도가 27.5%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70%정도는 하루에 2시간미만 정도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표 8-1-6〉 청소년 1회 평균 게임 이용시간(2005년) (단위: %)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합계
비율	10.6	27.5	32.9	17.1	6.9	2.1	2.8	100

자료: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청소년들의 47.3%가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은 11.7%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게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시 부모의 제약조건을 살펴보면, 54.2%가 부모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제약조건으로는 이용시간 제한(33.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숙제종료(8.1%), 좋은성적을 유지(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7〉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견해(2005년) (단위: %)

구분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합계
비율	13.1	34.2	41.0	9.0	2.7	100

자료: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표 8-1-8〉 청소년 게임이용시 부모제약(2005년) (단위: %)

구분	제약 없음	이용시간	숙제 종료 후 제한	좋은 성적 유지해야	이용종류 성적을	기타 제한	합계
비율	45.8	33.3	8.1	7.2	1.9	3.7	100

자료: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4) 게임물 심의 통계 현황

2004년도 게임제공업용게임의 심의신청 건수는 1,754건으로, 2003년 1,399건에 비해 25%가 증가하였다. 국내물은 1,681건, 국외물은 73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8-1-9〉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2004년) (단위: 건, %)

분류	구분	2003		2004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국내물	합계	737	58.2	1,185	70.5
	사용불가	527	41.6	495	29.4
	보류	3	0.2	1	0.1
	소계	1,267	100	1,681	100
국외물	합계	105	79.5	69	94.6
	사용불가	26	19.7	2	2.7
	보류	1	0.8	2	2.7
	소계	132	100	73	100
총계		1,399		1,754	

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통계 자료(www.kmrb.or.kr)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의 급속한 증가는 인터넷 전용회선의 수급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5 조사에 의하면 PC방 이용 주고객층의 연령비율은 10대 이하가 17.2%, 20대 이하가 50.3%, 30대 이하가 22.6%, 기타 9.9%로 단연 20대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 PC방 프랜차이즈 기획사가 출현하고 신규업소의 평균 PC보유대수가 55대를 넘어선 것으로 볼 때 업소의 대형화, 고급화, 쾌적한 분위기 등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이용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구분되며, 2004년도 전체

게임장 업소의 구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14,133개 게임제공업소 중 일반게임장은 12,320개로 무려 87.2%에 달하고 있으며 청소년 게임장은 1,813개로 약 12.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감소의 주요 이유로는 현재 PC방, 온라인게임 등 경쟁업종의 지속적인 성장, 주5일제에 따른 청소년 위주의 다양한 문화공간의 활성화로 인해 청소년 게임장은 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 하락세를 맞고 있다.

최근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음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게임업계는 많은 부분에서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은 제공하는 콘텐츠도 종전의 PC, 온라인게임 위주에서 영화와 음악감상 등 다양한 장르로 청소년 유치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국내의 유명세를 타고 중국, 일본, 동남아 일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가.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1)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설치하였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성매수 피해 청소년들의 긴급한 구조 요청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청소년을 구조한 후 일시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연계를 지원하며, 성매수 피해 청소년보호단체와 시설에 이들 피해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장학지원·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2) "청소년인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3년부터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청소년인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 법률지원단은 성매수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을 수행하고,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성매수 피해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성매수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정보보호 민간단체와 성매수 피해 청소년 대상 보호시설이 실시하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 유해환경 단속 및 조치

(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시킴으로서,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있다.

1999. 7. 1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40개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6개소로 재조정되어 2004. 12. 31 기준 총 66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및 학교폭력 단속실적

물질만능 주의의 확대와 청소년기 가치관의 부재 등으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 지정,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정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이 퇴폐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흥비 마련을 이유로 한 금품갈취 등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아 지속적인 유해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한해동안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15,962명을 단속하여 150명을 구속, 13,616명을 행정처분 의뢰하였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2개 폭력서클 265명을 검거 하였고 45명을 구속하였다.

〈표 8-1-10〉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명)

구분	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 행위	유해 매체물	조치		
		출입 금지	고용 금지	기타	술·담배 판매	유해 물건	기타			구속	불구속	행정 처분
2002	22,222	2,656	2,895	1,193	13,061	13	164	1,127	1,113	334	21,888	18,761
2003	17,771	1,962	2,262	730	10,743	26	51	1,024	973	226	17,545	15,515
2004	15,962	2,146	1,955	586	9,035	5	89	1,437	709	150	15,812	13,616

자료 경찰청

학교폭력의 경우 조직화된 폭력서클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과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100% 사건화되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은 처벌의 대상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라는 인식과 함께 피해신고를 위축시켜 학교폭력 근절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있으며 날로 조직화, 암수범죄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위주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1-11〉 학교폭력 단속실적(2004년)

(단위 명)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검거	구속	서클수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7,247	606	22	265	45	4,182	71	2,345	237	482	253

자료 경찰청

2004년도에 합동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유해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36,994명을 형사입건하여 그중 1,262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 단속실적은 청소년유해사범 24,435명을 단속하여 그중 364명을 구속하였고, 학교폭력사범은 12,559명을 단속하여 그중 898명을 구속하였다.

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민간 감시·고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발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그리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는 과정에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4년도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개편 및 쇄신작업관계로 새로 지정된 감시단은 없었고, 대신 활동이 부진한 396개 단체에 대해 지정을 철회하였으며,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279개의 시민단체 감시단(총 19,382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학교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YP(청소년참여 등)프로그램을 48개 YP시범학교와 연계하여 보급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및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순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신문잡지, 도서, 문화, 사진첩 등 인쇄매체와 TV방송, 비디오물, PC통신 등 영상·통신매체의 건전화 유도를 위해 각 단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반'을 구성·운영하여, 이들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성을 조사·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유해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세미나 개최, 각종 캠페인전개 및 유해업소업주 교육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청소년들이 연말연시 기간동안 들뜨기 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유해환경에 접촉함으로써 탈선·비행에 빠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중심이 되고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불우청소년(시설) 위문, 계몽·홍보사업,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 비행예방,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의 각종사업을 전개하였다.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은 각 기관·단체별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격려활동은 중복과 누락이 없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화 및 단속 실시, 위생접객업, 풍속영업소 등에 서한을 발송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법규를 준수하여 청소년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할 것을 관련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국에 걸쳐 청소년 격려 선도반을 설치하여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선도, 가두캠페인 전개와 취약지구 순찰, 심야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등의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위문은 청소년보호시설 및 근로청소년 학교 방문·격려, 소년·소녀가장 위문·격려, 어려운청소년 간담회, 모범청소년 표창 등의 청소년 격려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말연시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련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

가. 청소년보호체계 확립 및 국민참여 확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2003년 총 10회를 개최하여 총 51건을 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건실하고 내실있게 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등을 토의·건의하였으며 또한 전문분야별 유해환경 정화에 필요한 정책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운영체제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감시단 운영실태평가(7~9월)를 통한 활동부진감시단을 정비(396개 지정철회)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서울·경기·경남 등 3개지역) 및 YP프로그램 시범학교 지정·운영(32개교)을 통한 학교단위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헌신적으로 청소년보호활동을 펼쳐 온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고 청소년보호 국민의식 제고 및 실천확산을 위해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 시상(개인2, 단체1, 특별공로1)과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개선 유공자 87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책 및 유익매체환경 조성 지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정보통신물 건전화 대책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였다.

청소년의 미디어에 대한 변별력 향상 및 자녀의 미디어선용 지도능력 배

양을 위해 청소년보호 마라톤대회(10월),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체험 박람회(11월) 등을 전개하였으며 인터넷의 역기능 현상으로부터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 및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인터넷 교육(2~11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한 인터넷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게임중독 청소년 피해극복 온라인캠프 운영(7월),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회(5월·11월)를 실시하였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에 있어 청소년 유해성을 신속히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모니터 및 어머니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여 4~9월 사이 약 2,000여건을 모니터링 하였다. 특히 인터넷 성매매, 인터넷 음란물, 자살·엽기사이트 및 포탈사이트에 대한 심층모니터링(3~11월)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서버 차단 및 유해정보 내용삭제 등을 하였으며, 포털 사이트 평가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윤리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전문모니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유해사이트접촉실태를 4~10월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날로 음란·퇴폐화 되고 있는 스포츠 신문 등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스포츠신문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조항 신설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내용 게재 간행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유해광고·전단 등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운영의 강화(4월), 아케이드 게임관련 규정 개정 제안(5월), 방송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6~10월)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은 폭력·범죄 등 청소년 탈선·비행의 시발이 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및 여학생들의 흡연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그 폐

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 치료·재활에 힘쓰고 있다. 청소년 약물예방을 위해 인터넷 용 흡연예방 교육자료 게임CD를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12,000부), 흡연예방 순회교육팀 운영(20개교, 700명), 또래리더를 활용한 약물예방시범 학교(전국 15개교)운영, 보건교사 연수(200여명)를 추진하였다. 또한 흡연 예방 홍보를 위해 청소년흡연예방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NGO연대 구성·운영(12개 단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흡연 청소년의 금연 치료를 위하여 금연교실 운영(400여명), 금연침 무료시술 한의원 구성·운영(전국 500여개)하였다.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음주청소년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재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병원, 보건소, 교육기관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사업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 광명 지역까지 확대·실시하였다.

라. 청소년유해업소 환경정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보호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해업소 관련 업종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국유희음식업중앙회 등 11개 단체장),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사항 준수 협조요청(휴게실업중앙회 등 15개 단체), 청소년보호

법 홍보강화 및 준수요청(담배판매인 중앙회 등 12개 단체) 및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협조 요청(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9개 단체)을 실시하였다.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당사자의 의견접수→2차심사→확정·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제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하며, 신상이 포함된 제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여 2001년 8월 30일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한 이후 3년여에 걸쳐 총 5차례의 신상공개를 진행하

여왔다.

바. 가출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출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비행으로 유입되는 첫단계가 되며 가출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가 커질 개연성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반대책을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가족문제에 있음을 감안, 1999년도부터 가정교육 및 청소년가출문제를 전담하는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신가정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은 크게 가족해체방지 신가정교육운동 전개, 가출청소년보호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가출청소년 보호캠페인 전개, 가출청소년 예방·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추진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가출청소년 보호정책개발 및 프로그램보급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외국의 가출청소년대책 연구(2000. 11), 가출청소년 경로현황 및 단계별 대응과제(2001. 12), 가출청소년보호 법제도화방안연구(2001. 12),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2001. 1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매뉴얼 개발연구(2002. 12), 가족문화개선 청소년보호교육프로그램(2002. 12)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보호시설 및 관련단체에 배포하였으며, 2002년도 및 2003년도에는 가출 및 가족문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사업을 전개하여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움 개최(1999. 6), 아동학대 추방캠페인 실시(1999.

7), 「가정폭력과 청소년」을 발간·배포(1999)하였으며, 2002년에는 '가출청소년 보호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국 편의점과 PC방, 노래방을 대상으로 포스터 80,000부를 배포하였다. 2003년도에는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 안내지인 "봄이 떠난 아이들, 마음이 떠난 아이들" 50,000부를 전국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에 배포하였으며, 청소년쉼터와 전국 동시 거리상담을 실시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지지망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 가출청소년 예방·보호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에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발족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에 15개 단체, 2002년에 8개 단체, 2003년에는 6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이외 시설관계자 교육 및 자료 배포,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가출청소년보호업무 관련 관계부처 실무공무원 해외연수(2000. 11), 청소년보호시설 연계체계 구축방안(2001. 3)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2001년부터 매회 개최(2003년 제3회 개최)하여 가출청소년보호시설간의 연계방안마련 및 보호시설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넷째, 청소년 가출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족문제로부터 발생함을 인식, 가족해체 방지 등 신가정교육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론정립 및 제도적 기반조성에 힘써 2002년도에는 청소년보호 가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및 캠페인전개, 민간단체와의 연계강화 시범사업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가출문제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며,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인식하게 하였다.

사. 청소년 폭력 등 청소년 인적유해환경 개선

학교폭력, 가족해체 심화, 사회 전반의 퇴폐 향락문화 추구 등 제반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 폭력실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자살·살인으로까지 연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비행·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였고, 인터넷 이용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교사용지도지침서(4,000부), 중·고생용 학교폭력예방 자료를 제작·보급(30,000부)하였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국민의 청소년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과 참여확산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특별캠페인 실시(5월, 900명), 학교대상 폭력예방 교육 실시(10월, 5개 지역 6개교)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운영 및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활동 전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7. 12.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2004.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480명의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청소년유해사범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동 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단속과 계기별 지방자치단체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 청소년유해사범 근절에 선도역할을 다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유형은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로 대별할 수 있고, 98년도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 이후 단속적발건수(경찰청 통계)는 총 173,331건이고, 연도별로는 98년도 62,080건, 99년도 57,895건, 2000년도 28,408건, 2001년도 24,948건, 2002년도 22,222건, 2003년도 17,771건, 2004년 15,962건 등이다.

〈표 8-1-1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건)

연도	총 계	위반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판매	유해행위	유해매체물	구 속	불구속
2001	24,948	9,730	13,316	1,174	728	524	24,424
2002	22,222	6,744	13,238	1,127	1,113	334	21,888
2003	17,771	4,954	10,820	1,024	973	226	17,545
2004	15,962	4,687	9,129	1,437	709	150	15,812

자료: 경찰청

자.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최근 들어 경제여건 악화를 계기로 급격한 가족해체·학교위기 가속화로 가출·폭력·약물남용·성매매 등 일탈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중심의 보호시설은 운영재원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위험도출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운영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부재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였다.

제 2 장 특별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1.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활동지원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지원사업은 문화적 취약 계층인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통해 청소년기의 꿈과 이상을 키워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동 사업은 1987년부터 내무부에서 주로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95년도에 체육청소년부(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그 대상이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실업계 고교생 및 교정·보호 시설 수용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극공연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적 위인이나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청소년 취향에 맞도록 창작하여 록오페라 또는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하고 있다. 공연실적은 2004년에도 40회 공연에 35,000여명이 관람하였다.

2. 비정규학교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야간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학교 등 이른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이다.

비정규학교는 초·중·고·대학 등 각급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정규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2004년 12월 말 현재 158개교에 대해

따라서, 위험노출 청소년별 특성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가출·약물중독 등 청소년문제 발생 초기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출·폭력·약물·성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치료·재활 및 긴급구조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위험노출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차.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운영

「중앙점검단」 발족('98. 7. 15) 이후 각 부처별로 추진하였던 「청소년보호특별대책」 및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을 통합·보완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재구축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성 있게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청소년보호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기관 종합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표창(대통령 4, 국무총리 8)하여 청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켰다.

특히, 청소년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한 '티켓다방' 근절을 위하여 종합대책수립, 강력한 단속시행, 피해청소년 구조활동, 청소년 다류배달 금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실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원하고 있다.

1989년도에 처음 지원되기 시작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청소년 문예행사에 대한 지원은 비공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1994년도에 처음으로 155개교에 각 150만원씩(청소년육성기금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총 261백만원을 지원하여 비정규학교의 시설비, 임차보증금, 월세, 교구설비 및 교과서, 문구류 구입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나, 1995년도부터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임차료보다는 학생들의 교재 및 교구 구입과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도에는 158개교에 각 700만원씩 지원하되 규모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별로 문예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서예, 체험활동 행사로 매년 5-11월중에 개최되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상, 시·도지사상, 교육감상 및 부상금이 지급되며, 수상자에게는 문화유적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입상 작품집을 발간하고, 비정규

학교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격려 위안공연 및 작품 전시회를 시·도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 지원을 통한 청소년 격려행사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미래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근로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노·사간 상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매년 5월부터 11월에 걸쳐 1회씩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련활동은 경기종목 이외에 민속놀이,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상호경쟁의 성격을 띤 체육대회가 아니라 근로청소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활동은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바다, 들, 산에서의 대자연 체험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별로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3박 4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자연체험활동은 수영, 카누 등 수상활동과 야영, 오리엔티어링, 등반 등 육상활동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우정을 키우며, 긍정적 사고와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